

사회

한파 엄습 구제역 방역 '딜레마'

야간 소독액 결빙 위험 ... 나주시 14중 추돌사고도

해돋이 인파로 차량 이동 급증 당국 '비상'

전남도가 구제역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방역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민원제기가 잇따라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24일부터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도로에 뿌려진 소독액의 결빙 가능성이 높은데다 연말연시와 해돋이 인파로 인한 차량 이동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나들목(IC)과 주요도로 27개소, 시·군간 경계지역 49개소 등 모두 76개소에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초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액은 초소 1곳당 하루 12t 가량으로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확산 차단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과 운전자들의 불편도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오전 7시50분께 국도 1호선인 나주시 남평 검문소 앞 하행선에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 출근중이던 차량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사고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차량 처리 때문에 출근 차량들이 사고지점에서 4km 이상 정체돼 1시간30여분 동안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야했다. 경찰은 사고지점에서 실시중인 구제역 방역소독액이 노면에서 결빙돼 이곳을 지나던 1t 화물차가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초소 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 초소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세차 직후인데 소독액을

차에 뿌리면 어떡하느냐. 소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량이 남아있는 소독액이 사립한테까지 묻으면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 소독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추위 탓에 야간 방역에도 고충을 겪고 있다. 영하의 기온 때문에 소독조가 얼거나 도로에 깔린 자동살포기가 동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긴급 예비비를 투입, 약물 탱크에 열봉을 설치하고 자동살포기에 열선을 까는 등 방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

다. 전남도 방역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방역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 초소 300m 앞에서부터 안내 입간판과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등 사고 방지책을 마련 중"이라며 "야간에는 경광등 설치와 함께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마다 열화합수와 모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3일 화순군 직원들이 광주에서 화순으로 향하는 나릿재 입구에서 구제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76곳의 방역초소를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namj@kwangju.co.kr

경찰 스쿠터 '애물단지'

'골목길 방법 강화' 광주에 36대 배치

영하 날씨 순찰차 선호 ... 사실상 방치

골목길 방법 강화를 위해 광주 지역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급된 '경찰 스쿠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파출소 및 지구대 경찰관들이 근무시 순찰차를 선호하는 데다 최근에는 영하권 날씨로 인해 스쿠터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청으로부터 125cc짜리 방법을 스쿠터 36대를 배급받았다. 광주 경찰은 배급받은 스쿠터를 5개 경찰서 산하 파출소 33곳과 지구대 7곳 등 총 40곳에 각각 배치·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250만원에 이르는 '경찰 스쿠터'가 최근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파출소나 지구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당초 경찰은 순찰차에 비해 좁은 골목길 진입이 쉬운 스쿠터를 이용해 방법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경찰 스쿠터를 도입했다.

하지만 보통 2인1조로 움직이는 파출소 및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과 함께 순찰보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순찰차를 선호하면서 스쿠터 이용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매년 겨울이면 눈이나 바람을 막아줄 장치가 없는 스쿠터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의 입장이다.

광주의 한 파출소 경찰관은 "괜히 스쿠터를 타고 혼자 순찰을 나갔다가 큰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당혹스러울 것 같다"면서 "요즘 같은 날씨에 스쿠터를 타고 순찰한다면 추위를 이겨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경찰관들이 스쿠터 이용을 꺼림에 따라 현재 각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쿠터를 통합해 관리·운용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교대 체제인 파출소 근무 여건상 경찰관들이 스쿠터 이용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스쿠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03) 김종두



이용호씨 징역 2년3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52) 전 지엔지 그룹 회장에 징역 2년3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욕설' 시사만화가 벌금형

상나팔 ○대법원 3부 (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대통령

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시정 홍보지에 그려넣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욕설 글자를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해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며, 최씨도 욕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

○시사만화가인 최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만평을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좌우를 바꿔 추모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삽입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2만여부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연합뉴스

고속도로에 트레일러 2대 전복

용봉 IC 인근 ... 출근길 교통혼잡

2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순천기점 72km 지점 용봉 IC 인근에서 김모(39)씨가 몰던 25t 트레일러가 최모(45)씨의 25t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가 숨지고, 김씨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트레일러가 고장나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다.

또 트레일러 두 대가 전복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김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 300가구 단수

관로 연결공사 중 누수

목포에서 상수도 관로 연결공사 중 누수가 발생해 일부 가구에 급수가 중단됐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가 나주대교 인근 주암호 상수도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시는 누수 직후 탐진탐에 저장돼 있는 물을 대체 공급, 큰 피해는 없었으나 욕망, 하당, 용해지구를 제외한 시내 300여 가구에 대한 급수가 이날 오후 7시까지 중단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경찰 대안학교 압수수색 과잉 논란

학부모 "공권력 남용"

경찰이 최근 화순지역 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학부모 40명이 23일 "지난 21일 벌인 광주광산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공정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학교 운영에 자유가 있는데, 마치 교장이 운영비를 횡령한 것처럼 수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법

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극소수의 주장만을 근거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학 교 강당에서 학교와 교관수호를 다짐하는 결기대회를 갖고 공적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대안학교라도 인가를 받게 돼 있고, 교육청도 인가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법인도 아닌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과 요트를 구입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마취주사 후 식물인간 ... 병원 30% 배상 책임

광주지법 판결

미숙한 응급조치로 환자가 수술중 마취주사를 맞은 뒤 식물인간이 됐다던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병원 측에 일 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3일 화순 모 병원 공동운영자 6명이 조모(여·70)씨를 상대로 낸 '재무부준재 확인 소송'에서 "병원 측은 조씨에게 4100여만원의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취 과정의 과실이 없었지만, 의료진이 마취제 투입 후 조씨에게 쇼크상태가 발

생했음에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취제 사용에는 늘 위험성이 있고,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더라도 폐색전증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6일 화순군 자신의 집에서 넘어져 대퇴부를 다쳤으며, 이를 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척추마취 주사를 맞은 뒤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 전라남도 관문, 다양한 교통망 구축!

- 수도권 2시간 30여분,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편리한 교통

○ 저렴한 산업용지 분양가!

- 119.526원/㎡(3.3㎡당 395,000원)

○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 입지, 시설투자 보조금과 전기료지원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산업인력 적기 공급

- 30분 거리 150만 광주광역시

■ 공급대상토지

위 치	분양대상면적(㎡)	분양예정가격	공급방법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일원	1,096.110	119.526원/㎡	입주심의 후 대상자 결정

■ 입주대상업종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료품 제조업(10)	비금속 광물제품(23)
기타 기계 및 장비(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2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입주신청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지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류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 입주순순위

순위	내용
1순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순위	영광군 및 전라남도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추진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 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3순위	1순위 협력업체, 기타 입주희망업체

■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희망필지별 신청 접수 받아 관리기관의 입주심사에 의한 적격 대상자 선정.
- 필지별 분양토지에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입주순순위별 적격 대상자 선정
- 동일 순위내에서는 1군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결정하며, 동 순위일 경우 1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첨단업체, 2차 무공해업체, 3차 완제품 생산업체 순서로 결정
- 입주신청 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신청은 취소되며, 해당 필지별 차 순위에게 입주자격 부여.
- 입주 신청된 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없는 필지에 대하여는 별도 공고 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신청서 (공통)	○ 입주신청신청서 및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 공장등록증명원 1부(분양공고일 이전 등록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가능) ○ 용지매입신청 용서의에 따른 종람확인서 *입주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예 : 첨단업종, 무공해 등 해당업체)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 입주계약서 1부(소정양식) ○ 용지매매계약서 1부(소정양식) ○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5% 납입증 사본제출)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소정양식은 영광군청홈페이지에 다운 또는 (주)탑골로리에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음.

■ 대금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납부간격	계약시	2011.03.01	2011.07.01	2011.11.01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
비 율	5%	20%	20%	20%	35%

*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등 대금납부관련 사항은 영광군 공고고시 참고

■ 면적 및 금액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분양가격(단가)은 추정 조성원가로서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
- 분양원가의 결정, 선수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를 준용함.

■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은 2011. 12월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1년 이후 예정) 가능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및 분양문의 : 영광군청 지역경제과(061-350-5438)

(주)탑골로리(061-352-1231)

▶ 현장 및 관계도서 등 문의 : (주)탑골로리(061-352-1231)